

大江 健三郎와李清俊 초기 소설 비교 연구*

- 한·일 새로운 전후 세대의 세대감과 현실인식 -

이호규**
lhg@deu.ac.kr

<目次>

- | | |
|---------------------------------|--------------------------------------|
| 1. 한·일 전후 세대 작가로서의 오에 겐자부로와 이청준 | 3. 닫힌 현실 인식과 비판적 주제 - 배제와 소외의 부정적 현실 |
| 2. 세대감각 - 경험의 부재와 단절의식 | 4. 망명자 혹은 비판적 진술자 |

主題語: 새로운 전후세대(a new post-war generation), 세대적 정체성(generation's identity), 비판적 아웃사이더(critical outsider), 주체(subjects), 주체화(subjectivation), 배제(exclusion)

1. 한·일 전후 세대 작가로서의 오에 겐자부와 이청준

오에 겐자부로(大江 健三郎:1935-)는 199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벨 문학상 이후 많은 작품들이 번역 소개됨으로써 일본 현대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그는 이미 1958년 『짓밟히는 싹들(芽むしり仔撃ち)』을 발표하고 그 해에 「사육(飼育)」으로 39회 아쿠타카와(芥川)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60년대, 70년대 지속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잡아왔다.

이청준(李清俊, 1939년 8월 9일~2008년 7월 31일) 역시 1965년 잡지 <사상계> 신인상에 「퇴원(退院)」이 당선되고 1968년 「병신과 머저리」로 제12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의 역량을 과시한 이후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한국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2AA002)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935년 시코쿠(四國) 산맥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히메(愛媛)현 기타(喜多)군 오세무라(大瀬村)에서 태어나 자란 오에는 열 살이 되던 해 전쟁이 끝났음을 어른들로부터 듣게 된다. 1944년 돌연사로 아버지를 잃었던 오에에게 패전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하고 종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던 그 전쟁의 의미, 그 다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분명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버지의 죽음과 전쟁의 끝을 겪으면서 어린 나이에 세상의 질서가 달라졌음을 알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와타나베 가즈오의 『프랑스 르네상스 단장』이란 책을 읽고 감명받아 1년 재수 끝에 도쿄대 불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대학 시절 등단하여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청준은 1939년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출생했고 열 살 즈음에 한국 전쟁을 겪었다. 이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하였다. 이어 1960년의 4.19와 이듬 해 5.16을 경험하게 된다. ‘이청준은 흔히 4.19 세대의 경험과 의식구조를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드러낸 작가¹⁾’로 평가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능성과 좌절의 정신적 변화가 내재되어 있다. 어릴 때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삶에 영향을 미쳤던 전쟁의 경험과 20대 초에 연달아 겪었던 자유와 가능성의 경험과 통제와 억압, 천민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쿠데타의 경험은 그의 초기 문학의 주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침내 1965년 《사상계》 신인 작품 모집에 단편 소설 「퇴원(退院)」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오게 되었고 이어 「병신과 머저리」로 1968년도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오에와 이청준의 출생과 지역, 그리고 20대 초기 등단할 즈음의 사회 상황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들의 초기 문학을 결정짓는 주요한 동인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열 살 즈음 어린 아이일 때 각각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이해할 수 없던 어른들의 전쟁, 그러나 그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감각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아픔과 고통이 엄습해 옴을 느꼈다. 그리고 지방의 수재로 도쿄국립대와 국립 서울대에 외국문학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연구자의 길을 버리고 작가가 된다. 그때 그들이 맞닥뜨린 세상, 사회는 전혀 이질적이었고 이어 변혁과 혼란의 새로운 시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패전 혹은 종전의 아픔, 이데올로기적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고 있었고 한국 역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국가 질서 재편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4.19혁명과 연이어 5.16 군사쿠데타로 인한 군부독재의 시작과 소위 근대화를 내세운 경제개발의 진격으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0년의 안보투쟁과 1960년의 4.19 혁명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청춘이었던 그들에게 던져진, 전쟁 이후의 또 다른 화두였다.

1) 김영찬(2007.4)「4.19와 1960년대 문학의 문화정치」『한국근대문학회』15, p.141, 각주6) 참조바람

본 논문은 오에와 이청준의 초기 소설의 주제의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각각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전후세대로서 보이는 세대감각의 측면과 또 하나는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현실비판의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체란 무엇이며,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시각에서 오에와 이청준의 소설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 시각이란 주체를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구체적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대적 조건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이다.²⁾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에와 이청준의 초기 소설이 지니는 작가의 세대론적 의식과 그 확장으로서의 현실비판의식을 규명하여 한일 전후 세대의 문학사적 의의와 나아가 한일 현대 소설의 비교문학적 지평을 확장하여 새로운 논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세대감각 - 경험의 부재와 단절의식

‘전후파’는 실제로 전쟁을 체험했던 지식인 문학자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어두운 체험을 안고 돌아와 전후의 해방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지, 그것을 문학을 통해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戦後派」は実際に戦争を体験した知識人の文学者たちでした。戦争での暗い体験も抱えて帰ってきた、戦後の解放された社会の中でどのように生きて行くか、それを文学をつうじて実践した人たちです。³⁾

한국에서의 전후 세대 소설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전후세대 작가들⁴⁾은 ‘일제

2) 박태호(1998)「1장 근대적 주체의 역사이론을 위하여」『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pp.30-43 참조바람.

3) 大江健三郎、聞き手 構成尾崎真理子(2007)『大江健三郎 作家自身を語る』新潮社、p.61

4) ‘전후세대(1950년대)란 통상, 오영수·김성한·손창섭·장용학·한무숙·유주현·정한숙·강신재·박연희·손소희 등 전쟁 이전에 《예술조선》·《백민》·《신천지》·《문예》 등으로 등단한 작가와, 전쟁 이후 《사상계》·《문학예술》·《현대문학》 및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호철·김광식·오상원·서기원·최상규·하근찬·박경리·오유권·곽학송·최인훈 등을 가리킨다(김윤식·정호웅 공저(1993)『韓國小說史』예하, p.328

‘전후 문학자들은 전전, 전중에 자기를 형성했던 인간들이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운동 속에서, 혹은 일개 병사로 나갔던 외국에서 자연·사회·국가역사와 대면하면서 자기를 형성했다(호쇼 마사오 와고 재석 옮김(1999)『일본 현대 문학사 上』문학과지성사, p.308

이상에서 볼 때 한일 양국 공히 전후소설의 범주는 전쟁 기간 중에 청년기를 맞아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세대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에와 이청준은 패전과 한국 전쟁 전에 태어나 전쟁을 체험했고 그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썼던 세대로 전후 세대 작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에와

식민지 시대에 소년기를 보내면서 해방을 맞았고, 청춘을 전쟁 속에서 보낸 후, 폐허의 터전에 새 삶을 가꾸기 위해 나선 사람들⁵⁾이었다. 그들이 전후 작가로 활동하며 전후 문학이라고 불렀던 기간은 전쟁 직후 십여 년간이었다. 일본의 경우 전후 문학의 주제가 새로이 변모하고 전후 소설가의 자기 변화와 새로운 작가들의 등장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전후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⁶⁾였으며 한국 역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십 년이 지난 후인 1960년대 초⁷⁾였다. 오에와 이청준은 바로 전후 문학에서 새로운 경향의 소설로 나아가는 세대의 대표 주자였다.

하지만 그들(전후파)과 직접 만나보면 나에게는 전후파의 경험도 사상도 없다는 것을 통감했고 자신이 어중간한 인간으로 여겨져 침울해지곤 했습니다.

しかしかれらに直接会ってみると、自分には戦後派の経験も思想もないということを痛感して、自分は中途半端な人間だと落ち込むことがありました。⁸⁾

여기서 오에가 통감한 것, 즉 전후파의 경험과 사상의 부재에 대한 자기 인식은 전후파로 대변되는 앞선 전후 세대와 자기 세대가 다르다는 분명한 인식을 낳게 된다. 그의 초기 문학은 앞선 전후 세대와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그를 통한 자기 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타인의 다리」에서 중요한 지점은 화자인 열아홉 살 소년이 어느 날 다리가 다쳐 들어온 대학생에 대해 갖는 시선과 그 변화이다. ‘쾌락의 축복’속에 지내고 있는 그들의 공간 속에 대학 문학부에 다니다 두 발을 다쳐 왔다는 사내는 그는 ‘우리’와 달리 간호사의 음란한 행위에 굴욕감을 느끼며 거부한다. 그는 ‘생활을 개량해 나갈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아이들을 설득하여 요양소 생활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제 정세에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급기야 미성년자 병동 아이들의 이름으로 원자 수소 폭탄에 반대하는 글을 신문에 투고하고 그 글이 실리게까지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청준은 바로 그런 앞 세대와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찾아나간 세대, 즉 새로운 전후 세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밝혀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5) 권영민(1994)『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민음사, p.144

6) ‘패전의 상실감을, 전후의 풍조에서 위화감을 느꼈던 감성과 사상이 다양한 작품을 낳기 시작한 것은 패전 이후 10년이 지난 1955년 전후이다.’, 호쇼 마사오 와.고재석 옮김, 앞의 책, p.58

7) ‘(1960년대-논자)전후세대의 작가들이 자기 변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소설적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작가들이 등장한다.(중략) 김승옥, 박상룡, 박태순, 서정인, 유현중, 이문구, 이청준, 정을병, 홍성원, 박순녀, 김의정 등이 소설적 경향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점이다.’(권영민, 앞의 책, p.198)

8) 大江健三郎, 聞き手・構成尾崎真理子, 앞의 책, p.63

간호사들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내내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사내를 지켜보면서 모임에 가담하지 않았던 화자조차 거기서 희망을 본다.

저 사내는 우리들을 둘러싼 두터운 점액질의 벽에 구멍을 뚫어 바깥을 향한 희망을 확실히 회복시켜 주었어, 하고 나는 목이 마를 정도로 생각했다. 내 마음 속에서는 작지만 모양이 좋은 희망의 싹이 싹트기 시작했다.⁹⁾

그러나 그 사내의 다리 수술이 성공하면서 병동으로 돌아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다리로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학생과 소년들 사이의 균형이 이상하게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사내는 떠나고 ‘도어가 달히고 두터운 점액질 벽의 틈은 붙어 버렸다.’ 모든 것은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애초에 아이들은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구의 몸으로 소설에 등장한다. 그들 앞에 나타난 청년은 헛된 희망만을 잠깐 안겨 주었다가 떠나버린다. 청년의 불구는 일시적이었으며 따라서 청년은 자기가 병동에서 무엇을 하면서 버틸 것인지 알고 있었다. 침대 아이들의 불구는 그래서 더욱 깊고 절망적이다. 원인도 알 수 없고 치유 방법도 알 수 없는 불구 상태, 오에의 세대론적 감각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같은 불구라는 공감 속에서 희망을 심어주는 주체라고 믿었던 청년, 즉 앞 세대의 정체성과 전망은 애초부터 침대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없다. 일시적이고 치유 가능하며 목표 설정이 가능한 청년에 비해 원인도, 치유 방법도 따라서 목표 설정도 불가능한 침대 아이들, 즉 오에 세대의 불구 상태, 아픔은 더욱 깊고 절망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후세대로서의 자기 인식이 보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작품이 「용감한 병사의 아우」이다. 현재 발기 불능의 상태인 주인공은 동정인 채로 전사한 형에 대한 어떤 심리적 이유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형은 도쿄 대학 법학부 재학 중 해군에 입대하여 전쟁 말기에 23살의 나이에 전사했다. 어머니와 함께 찾아간 영매(靈媒)는 죽은 형의 음성으로 영매는 청년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어 본 일도 없이 자라난 젊은이는 모두 다 불능이 되어 보상을 해야만 한다’라고 울부짖는다.

그러나 국민학생이었던 나 역시 형의 하숙집에 때때로 편지를 보내어 해군에 지원하기를, 그리고 특공대원의 아우로서의 명예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기를, 철 모르는 어린아이인 채 하면서 은밀하게 강청(強請)했었던, 실로 가증스런 에고이스트인 애국자 꼬맹이었다.¹⁰⁾

9) 오에 겐자부로(1994)「타인의 다리」『1994 노벨문학상 수상 오에 겐자부로 대표작 선집』국일문화사, p.145
10) 오에 겐자부로「용감한 병사의 아우」, 위의 책, p.156

형과 동생은 함께 호명되었고 그 표상을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Je-Ideal)라고 동일시함으로써 주체화/신민화(subjectification)되고자 했던 것, 그들은 그런 점에서 같은 세대이다. 그런데 여기서 ‘체’라는 단어는 복잡미묘하다. ‘체’했다 하지만 사실은 ‘채’인 것, 천황을 위해, 국가를 위해 특공대원이 되어 목숨도 버려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표상은 어린아이인 그에게가 아니라 형을 더욱 강하게 호명(呼名)하였을 것이다. 분명한 자각이 불러온 자발적 투신이든 고뇌 속에서 결정된 강요된 호명이든 형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어린아이인 체’였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인 채’였던 동생은 지금 전사한 형에 대한 죄책감으로 발기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는 자신의 발기 불능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느낀다. 같은 전쟁 세대이지만 어린아이인 ‘채’ 받아들였던 전쟁의 의미는 이제 치유될 수 없는 ‘불능’을 낳는다. 참전의 요구를 비껴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 큰 고통이 그들을 절망과 무기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이 소설은 가장 가까웠던 형 세대와 공유한 전쟁의 체험이 오히려 세대론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들에게 더 풀기 어려운 세대론적 책무를 남겨 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양」의 경우 유승창은 ‘대미중속적인 전후일본의 시대상이 가장 선명하게」¹¹⁾ 드러나는 소설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외국병사와 치욕스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주인공을 압박하는 교원과 주인공, 이 세 인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이 소설이 외국병사로 나타나는 미국에 대한 오에의 비판적인 시각 그 자체보다 그러한 폭력을 가능케 하고 도리어 또 다른 폭력의 주체로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전후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전후 세대로서의 주체적 물음과 고뇌라는 주제의식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버스 안에서 외국 병사들로부터 양(羊) 취급을 받으며 성적 희롱을 당할 때 그저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던 교원이 그들이 사라지고 난 후 직접 피해를 당했던 ‘나’에게 끈질기게 행동을 촉구하고 나아가 협박까지 하는 모습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고 행동했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세대, 그 세대의 무기력과 방관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 입은 젊은 세대들을 책임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행동을 강요하는 세대를 보여준다.

이러한 세대론적 인식의 양상은 이청준에게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1960년대 한국문학은 4.19와 5.16, 한국전쟁, 개발과 근대화, 교육과 문화 환경의 변화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문학 내부에서의 (비)연속적 변화 등이 거기에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화학 작용의 산물이며, 그 중에서 4.19보다는 오히려 6.25의 역사적 경험의 상흔이 1960년대 문학의

11) 유승창(2012)「오에 겐자부로 문학에서 보는 현실세계의 폐쇄성과 주변적인 공간의 시점」『일본어문학』 52, 한국일본어문학회, p.236

여기서 유승창은 ‘외국병사의 폭력과 이에 침묵하는 승객들의 태도는 미국을 하나의 벽으로 인식하는 오에의 시대인식을 나타내며, 동시에 권력적인 관계에 순응하는 전후일본인의 내면적인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의 지적을 끌어들인다. (유승창, 위의 글, 각주5),7) 참조바람)

특질을 결정하는 지배소로 작용하고 있음¹²⁾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험은 청년 시절 실제 전쟁에 참전했거나 혹은 그들과 동년배로서 전쟁을 겪었던 세대인 전후작가들과 소위 4.19 세대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청준같은 4.19 세대, 즉 전후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에게 전쟁의 경험에 대한 질문은 오예가 선배세대인 전후 작가들을 보면서 느꼈던 세대론적 감각과 같은 것이었다.

‘1970년대 발표된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과 「조율사」에서 이렇듯 《사상계》 경험을 구체적으로 옮겨놓은 이청준은 ‘《사상계》 세대’라 부를 수 있는 앞 세대 지식인에 대한 입장 역시 솔직히 드러낸다. 이들 작품의 화자가 보기에 근무하는 잡지사의 필진은 “확고한 의지와 (...) 불굴의 힘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한 지식자들이다.(〈자서전〉63).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역사를 선택해온 이들이며 “막히면 튀어나가버릴 망명지가 있었던 세대이다.”(〈조율사〉 173). 반면 화자의 삶은 언제나 선택하기보다 선택당해왔다는 감각으로 특징지어진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주인공 이준이 쓴 소설은 바로 이 감각을 삽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¹³⁾ 어린 시절에 전쟁을 체험했다는 것은 직접적 죽음에 대한 선택이나 공포로부터 배제되어 안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없었던 무지와 그러면서도 감지되어지던 삶에 대한 공포의 이중적 고통을 더욱 깊이 절감할 수밖에 없는 세대론적 조건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청준이 보여주는 4.19세대는 ‘무릇 선택이라는 행위의 무용성’에 대한 깊은 체험적 확신을 갖고 있다.’¹⁴⁾행위의 무용성에 체험적 확신은 역설적으로 알 수 없는 고통의 존재와 그로 인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 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청준의 초기 대표작인 「병신과 머저리」는 그러한 새로운 전후 세대의 내적 고민을 진지하게 집약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병신과 머저리」는 참전 당시 낙오의 경험을 소설로 쓰기 시작한 형의 이야기를 동생이 화자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화실을 운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나는 그러나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뭔가 그리고자 하지만 제대로 그려지지도 않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인 형이 의료 사건 직후 지금까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참전 당시의 낙오 경험을 소설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된다. 그것은 형의 소설에 자신의 무기력을 해결해 낼 수 있는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동생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형의 작품을 읽고 난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 형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형은 자신의 아픈 곳을 알고 있지만 나는

12) 김영찬, 앞의 글, p.138, 각주1) 참조바람

13) 권보드래·천정환 지음(2012)『1960년을 묻다』천년의상상, p.90

14) 권보드래·천정환 지음, 위의 책, 91쪽

아프다는 사실만 알 뿐 어디가 왜 아픈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부를 지닌, 어쩌면 처음부터 환부다운 환부가 없는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환자일까요. 더욱이 그 증상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그 환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이 무슨 병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병은 더 위험한 거예요.¹⁵⁾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혜인이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청준 세대의 세대론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청준 세대의 아픔은 이해할 수 없었던 전쟁의 체험이 가져 온 정신적 외상과 전후 혼란한 사회적 경험, 그리고 4.19와 5.16의 경험이 빚어낸 그들 세대만의 것, 그것의 정확한 환부 찾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형의 세대와 동생의 세대, 그 가까우면서도 미묘한 그러나 본질적인 발생론적 차이는 단순히 세대차이로 규정될 수 없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형의 소설에는 어린 시절 노루 사냥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기억, 즉 전쟁에서의 낙오와 살해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의 결말이 미뤄지고 있음에 조바심이 난 동생은 형이 김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 써버리는데, 형은 그 결말을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이고 오관모를 형이 죽이는 것으로 고친다. 실제로는 형이 부상 당한데다가 오관모에게 성적 노리개로 농락당하기까지 하는 김일병을 연민의 감정으로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형에게는 오히려 비겁한 행위로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설 속에서는 자신이 오관모를 죽이는 것으로 바꾸었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형이 소설을 마무리한 후 어떤 자리에서 살아있는 오관모를 보고 왔다면서 원고를 불태우는 데서 추측이 가능하다.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 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는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 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¹⁶⁾ 원고를 불태우는 형을 보며 동생은 형과 자신의 차이점을 깨닫는다. 형은 자신의 아픈 곳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따라서 형은 다시 진료를 시작할 것이라고 동생은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환부는 어디인가를 알 수 없다. 엄살이 아픔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어쩌면 못 찾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청준 소설은

15) 이청준(1971)「병신과 머저리」『별을 보여드립니다』일지사, p.111

16) 이청준(1971), 위의 책, p.117

경험적 사실과 허구적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정신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경계의 저멀리 바깥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진실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¹⁷⁾ 세대론적 차이가 빚어내는 이러한 인식은 이청준에게 오히려 자기 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작가로서의 진실 찾기에 더욱 천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3. 닫힌 현실 인식과 비판적 주체 - 배제와 소외의 부정적 현실 -

내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역시 1950년대 후반에, 전쟁 중에는 시골 지방의 아이였던 청년이 도쿄에 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시대로부터 비쳐오는 빛나는 것이, 소설의 등장인물을 비추고 있는 부분은 있다.

自分の小説を読み返してみると、やはり一九五〇年代後半に、戦争中は地方の子供だった青年が東京に出て、不安な気持ちと共に生きているという、時代の方から射してくる光つてものが、小説の登場人物を照らしているところはある。¹⁸⁾

오에는 자신의 문학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청준 역시 전쟁 중 어린이였고 지방 출신으로서 국립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작가가 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동일한 태생적 조건은 세대론적 감각에 민감하게 작용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도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는 망명자로서, 중심을 비판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태도를, 안보 때부터 점차 굳혀온 사람입니다.

私なども、故郷にわ帰らないエグザイルとして、中心を批判する場所で仕事をしたいという態度を、安保の頃から次第に固めてきた人間です。¹⁹⁾

17) 장영우(2009.2) 「경험적 사실과 허구적 진실-「퇴원」, 「병신과 머저리」론」 『한국어문학연구』5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pp.287-288 참조바람

18) 大江健三郎, 聞き手構成尾崎真理子, 앞의 책, p.88

19) 大江健三郎, 聞き手構成尾崎真理子, 앞의 책, p.70

오에의 이러한 발언은 오에 문학의 출발점이자 주제의식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를 확실히 보여준다. 망명자 혹은 비판적 아웃사이더로서의 현실비판인식은 중심과 주변, 다수와 소수의 위계적 질서가 어떠한 장치를 통해 생산되고 수용되는지 그 양상에 대한 천착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감금 혹은 배제로 나타나는 폐쇄성에 대한 고찰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양상은 이청준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 여기서는 그러한 소설적 구성과 주제의식을 근대적 주체 생산의 매커니즘²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근대적 주체를 생산해 내는 매커니즘은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표상체계의 패러다임이고 두 번째는 습속·권력의 패러다임이다. 첫 번째 입장은 라캉의 이론에서 두드러지며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에서의 호명과 이중의 거울놀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문제설정은 기존의, 혹은 항상 이미 존재하는 어떤 사회 문화적 질서 속에 개인들이 어떻게 편입되는가, 개개인은 그러한 질서를 어떻게 내면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개인은 무의식을 통해 그 사회의 표상체계 속으로,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의되는 “자아의 이상”(ideal-du-moi)을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Je-Ideal)라고 동일시함으로써 주체화/신민화(subjectification)된다.

또 다른 패러다임인 습속·권력의 패러다임은 강제와 감금, 감시와 처벌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새겨지는 권력을 통해 주체의 구성을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습속의 도덕을 분석하고자 했던 니체로부터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의 개념,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 엘리아스의 사회적 아비투스 개념 등이 포함된다. 푸코의 밴덤의 펜옵티콘에 대한 유명한 분석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시선’을 통해 감시당하는 자 스스로가 감시자가 있던 없든 스스로에게 강제하고 내면화하게 하는 권력의 도식의 실례를 보여준다. 서양 매너의 역사를 통해 근대적 삶을 특징짓는 습속의 도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엘리아스의 분석 역시 주체란 신체에 새겨지는 습속의 도덕을 통해, 그 신체적 권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푸코나 들뢰즈/가타리의 경우는 기존에 지배적인 권력이 작동하는 질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데, 탈주나 탈영토화의 개념이 그러하다. 오에와 이청준은 순응과 종속의 주체 생산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그림으로써 부정적 조건을 극복한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향하는 동일한 주제의식을 보인다.

오에의 ‘초기문학의 폐쇄성은 단순히 내면적인 고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전후의 시대상을 폐쇄공간을 통해 상징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종속자라는 권력관계를 공간 조형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²¹⁾ 그런데 그의 초기문학에 대한 기존

20) 박태호(1998)「1장 근대적 주체의 역사이론을 위하여」『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pp.30-43 참조바람

의 논의에서 “감금상태”는 단순히 공간적 개념만으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오에 문학에서 “감금상태”는 차별과 배제, 감시와 통제 및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이 두터운 벽을 확실히 만져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벽이 우리를 감금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우리는 일종의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 갇혀 있었지만, 누구도 결코 이 점액질의 투명한 벽에 깊은 골을 파고 도망치려고는 하지 않았다.²²⁾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의 무기력한 생활에 안주하는 십대 환자들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잠시 희망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 불가능성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만다. 십대 젊은 세대들을 불구의 상태로 만들어 닫힌 공간에 감금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젊은 세대들의 절망적 체념은 순응적 주체가 아닌 닫힌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비판은 닫힌 체제와 그에 순응하는 기성 세대에 대한 비판, 나아가 절망적 체념에 빠지는 자기 세대에 대한 반성을 나타낸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집합이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정의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주체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주체화(subjectivation)는 언제나 예속화(assujettissement)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주체화는 벗어나고 이탈하는 주체화의 점(point de subjectivation)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기존 권력체제는 이탈 혹은 탈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감금과 노동을 통한 갱생, 감시와 엄격한 규율에 따른 신체의 훈육, 감시자 없이도 작동하는 감시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순응하는 주체를 재생산해내려고 한다.²³⁾ 오에와 이청준은 닫힌 사회의 권력체제가 어떻게 종속적이며 순응적인 주체를 생산해내고 있는가를 주체 생산 매커니즘을 통해 비판한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읍으로부터 더러운 짐승처럼 배척당하고 있었으나, 좁은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비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부락에서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이 불편 없이 영위되고 있었다.²⁴⁾

21) 유승창(2012)「오에 겐자부로 문학에서 보는 현실세계의 폐쇄성과 주변적인 공간의 시점」『일본어문학』52, 한국일본어문학회, p.236
22) 오에 겐자부로(1994)「타인의 다리」『1994 노벨문학상 수상 오에 겐자부로 대표작 선집』, 국일문화사, p.127
23) 이진경 지음(1997)『맑스주의와 근대성』문화과학사, pp.235-237 참조바람
24) 오에 겐자부로, 「사육」, p.60

「사육」에서는 이중의 폐쇄적 장치가 놓여 있다. 내가 사는 마을은 이전부터 읍과 차별되어 있는 소외지역이다. 이미 사회 내에서 차별과 소외, 배제와 통제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읍으로부터 소외되어 차별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읍으로부터의 지시를 스스로 지키고 따른다. 감시와 통제는 여전히 작용하지만 마을 사람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순응적 주체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 통제 상황에 어느 날 미군기가 추락하고 흑인 병사가 잡히게 된다. 마을과 읍, 그리고 마을 사람과 흑인 병사의 관계는 종속적 연결 체제를 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흑인 병사를 짐승 취급하며 감금하고 사육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 역시 마을 사람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읍으로부터의 지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이며 과정이다. 이미 그들 역시 감금과 통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흑인 병사를 감금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 흑인 병사를 감금하고 통제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감금당하고 통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비교인식하지는 못한다. 마침내 읍으로부터 흑인 병사를 데려오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흑인 병사는 탈주를 감행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나는 당당한 죽음과 죽은 자의 표정을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웃음 짓는, 그러한 것들에게 급속히 익숙해져 있었다. 마을 어른들이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 있듯이.²⁵⁾

흑인 병사의 죽음에 이어 서기의 어이없는 죽음 앞에서 보이는 어린 나의 태도는 닫힌 사회에서 통제 속에 생산되고 길들여진 주체가 갖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익숙하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닫힌 사회의 주체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순응하는 종속적 주체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의 시대였다. 오랜 홍수 같은 전쟁이 집단적인 광기를 인간의 정념의 주름과 주름, 몸뚱이의 모든 구석구석, 숲속, 가로(街路), 하늘에 범람시키고 있었다.²⁶⁾

「사육」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 중편 『짓밟히는 싹들(芽むしり仔撃ち)』이다. 전쟁 말기 감화원에 있다가 찾는 가족이 없어 결국 집단 소개(疏開)당하게 되는 열다섯 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은 권력의 중심과 주변, 배제와 소외, 감금과

25) 오에 겐자부로, 「사육」, 위의 책, p.124

26) 오에 겐자부로(1994) 『짓밟히는 싹들』 『飼育』 신구미디어, p.104

통제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당대 일본의 폐쇄성과 부조리한 사회적 관계를 고발하고 있다.

소년들은 철저한 감시 하에서 이동하여 한 마을에 임시로 머물게 되는데 그들은 마을에서 이방인으로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다.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에 갇힌 짐승’과 다름없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처지, 타인들의 태도에 익숙해져 있다.

미친 어른들이 거리에서 광분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온몸의 피부가 매끄럽고 밤빛으로 빛나는 숨털밖에 없는 자들, 하찮은 비행물 저지른 자들, 그 중에는 비행 소년의 경향이 있었다고 판정되기만 한 자들을 계속 감금하는 미묘한 정열이 있었다는 것은 기록해 둘 만한 일이다.²⁷⁾

전쟁 중의 고아들은 부랑자일 수밖에 없다. 부랑자를 감금하고 통제하면서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과 밖 모두에게 확실한 순응적 주체로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기본 매커니즘이다. 닫힌 사회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마을에 마치 짐승들처럼 감금당해 있던 아이들에게 더욱 큰 감금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을에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소년들을 마을에 감금시켜 놓은 채로 마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남겨진 소년들, 그리고 조선인 마을의 아이와 탈주병 모두 배제와 소외의 대상들이다.

도록꼬의 퀘도가 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장>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갇힌 골짜기의 마을을 몇 겹으로나 겹쳐 둘러싼 마을과 마을의 농민들의 결집된 적의(敵意), 그들의 완강하고 두꺼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벽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들에게는 그곳으로 머리를 틀어박고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절망적으로 불가능했다.²⁸⁾

마을 주변으로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마을 안에 남겨진 고아, 조선인 아이, 병 든 소녀, 탈주병은 감시당하고 전염병에 내던져진 희생양이 된다. 결국 소녀는 죽게 되고 탈주병을 잡기 위해 헌병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지만 그들은 또 다시 기만당하고 배제된다. 마을 사람들 자신이 더 큰 권력체제 안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애초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지도 않았으며 피난도 하지 않았다는 거짓을 소년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닫힌 사회 안에서의 폭력적인 관계의 공포와 억압은 소년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던 것, 폭력적 세계의 불합리성이 여실히 비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오에 겐자부로, 『깃뱀히는 싹들』, 위의 책, p.104

28) 오에 겐자부로, 『깃뱀히는 싹들』, 앞의 책, p.177

단힌 사회에서 권력의 호명에 자발적 주체화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신랄하게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문제작인 「세븐틴」²⁹⁾이다. 가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게 일상을 보내는 열일곱 살 아이가 스스로 우익의 이념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나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권력체제의 순응적 주체가 되는 것인가를 오에는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나는 비참하고 추한 세븐틴이지만 그렇다 해도 타인들의 세계는 내게 잔혹한 짓을 했다. 내게 너무 잔혹한 짓을 했다. 나는 이제 이 타인들의 현실 세계에서 선의를 발견했다고 해도 의지하는 일은 그만두겠다.³⁰⁾

학교 체육 시간 달리기에서 치욕스런 창피를 당한 주인공이 교사와 친구들과 세상에 대해 적의를 품고 속으로 외친다. 스스로 일어서서 이 잔혹한 세상에 대해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우익의 철저한 순종적 주체가 되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 선택은 이미 과국을 배태하고 있는데, 그에게 치욕을 안겨 준 타인들의 세계는 부조리한 다수의 폭력이 용인되고 인정되는 단힌 세계인데 그가 그 세계를 부정하고 택한 우익의 세계 역시 더욱 강고한 폐쇄적 권력체제이기 때문이다. 부정(不正)의 부정(否定)이 더 강고하고 폭력적인 부정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날 밤 내가 얻은 교훈은 세 가지이다. <우익>소년인 내가 완전히 타인들의 눈을 극복했다는 것, <우익> 소년인 내가 약한 타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잔학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익> 소년인 내가 천황 폐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³¹⁾

폭력적인 세계에 맞서 그가 선택한 길은 철저히 우익 소년이 되어 천황의 아들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면화하는 길이다. 학교 내 폭력적 세계보다 더욱 강한 권력 체제로 들어감으로써 그는 스스로 폭력의 주체가 된다. 그는 좌익들을 처단하는 황도와 청년 그룹에 가담하여 ‘가장 용감하고 가장 흥포한 가장 우익적인 세븐틴’이 된다. 스스로 단힌 권력의 순응적 주체가 되어 폭력을 휘두를 때 그는 ‘강간자의 오르가즘을 느끼고 황금의 환영에 모두 죽일 것을

29) 1961년에 「세븐틴」1부와 2부가 잡지 『문학계』에 발표되었지만 2부에 해당하는 「정치소년 죽 다(政治少年死す)」가 우익단체로부터 협박을 받아 그 이후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재수록이나 출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30) 오에 겐자부로, 「세븐틴」, 앞의 책, p.327

31) 오에 겐자부로, 「세븐틴」, 위의 책, p.350

맹세하는 유일한 지복의 세븐틴³²⁾이 된다.

이청준 역시 등단초기부터 닫힌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하면서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작가의식을 보여 왔다. 그의 등단작인 「퇴원(退院)」에서 주인공은 소학교 때 아무도 몰래 어머니나 누이의 속옷을 몇 가지 가져다 광 속 벅섬 사이에 숨어들어가 낮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들켜 감금당했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 아버지에게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놈이라는 취급을 받았다.

여기서 어두운 광 속에 숨어 있던 나의 이야기와 아버지가 비춘 전깃불은 이후 『소문의 벽』에서 주인공 박준의 소설로 재생되는데, 박준의 소설 <괴상한 버릇>이 그것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그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무슨 꾸중을 들을 일이 있으면 지레 겁을 먹고 광속 같은 데 숨어들어가 자는 척을 하곤 했다. 처음에는 잠을 자는 척하다가 점점 진짜 죽은 사람 흉내를 내기까지 한다. 그 버릇은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결혼 후에도 이어지다가 마침내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질 않게 된다. 「퇴원」의 주인공이 어릴 때 가지고 있던 버릇이 「소문의 벽」에서 소설 속 주인공의 소설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전깃불은 이청준의 등단작이랄 수 있는 이 작품에서 별 의미 없이 나타나지만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자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전깃불 모티브를 통해 억압적 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는 중편 『소문의 벽』은 초기 이청준 소설의 주제 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 잡지사 편집장 일을 하는 나는 십여 일 전 쫓 우연히 길에서 한 사내를 만나 하룻밤 그를 재워주게 된다.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는 웬지 낮이 익었는데, 그가 실제 만난 사이는 아니었지만 두어 해 전 꽤 가능성 많은 신진 작가로 주목받았던 박 준이었음을 알게 된다. 새벽에 말도 없이 사라진 그 사내가 궁금하여 근처 정신병원에 혹시나 하고 갔다가 거기서 그 사내가 박준이었으며 어젯밤 그가 병원을 탈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의사로부터 그는 이상하게도 스스로 병원에 찾아왔었으며 그의 증세는 일종의 진술 공포증이라는 말도 듣게 된다. 같은 출판사에 있는 안형이 언젠가 박준의 원고를 받아 아직까지 출판도 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곤 안형에게 부탁하여 그의 소설을 읽게 된다. 그것이 앞서 말했던 「퇴원」에 나오는 광 속에서의 기억이 변주되어 나타나는 <괴상한 버릇>이다. 그리고 전깃불의 실체와 그 상징적 의미는 보다 분명하게 박준의 미발표 소설과 그의 인터뷰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의 인터뷰 내용은 어릴 때 6·25가 터진 직후 경찰과 공비가 번갈아가며 마을을 휘젓고 다녔던 그때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머니와 나(박준)만 있는 집에 들이닥쳐 전깃불을

32) 오에 겐자부로, 「세븐틴」, 앞의 책, p.353

얼굴에 들이대고 어느 편인지 물었던 기억에 관한 것이었다. 상대방이 누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편인가를 대답해야 하는 것은 목숨이 걸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공포는 엄청난 것이었던 것. 그 어릴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박준은 소설을 쓰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박준의 여동생으로부터 박준이 집을 나가기 전에 맡겼다는 원고를 받게 되는데, 그 원고 속에 더욱 분명히 전깃불에 대해 이야기해 놓고 있었다. 그 소설은 G라는 인물이 어느 날 환각 속에서 어떤 음모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환상의 심문관에게 기억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식 없이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가장 정직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그가 우선적으로 어린 시절 공포스러웠던 전깃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전깃불의 경험과 지금 환상의 심문관 앞에서 무조건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은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 앞에서 철저히 종속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심문관의 진술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전깃불에 대한 기억만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G에게 전깃불의 경험은 한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경험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잘 곳이 없어 강의실에 숨어들어가 밤을 보내곤 하던 그때 강의실을 비추던 수위의 전깃불 등 G의 진술은 한결같이 전깃불에 관한 것뿐이었고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을 할 수 없는 G에게 심문관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

심문관이 밝히는 G의 유죄 심증의 이유

첫째로 당신은 우리에게 체포당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우리에게 당신이 체포당했다는 사실 - 지금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둘째번 이유는 당신이 줄곧 우리의 정체에 대해 불요부당한 의문을 품고 있었던 점입니다. 당신은 진술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들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밀은 영원한 것입니다. (중략) ...내가 당신에게 처음부터 <음모혐의>를 걸어 진술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문 방법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경우 진짜 피의자들은 대개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어떻게든 혐의를 벗어 보려고, 다른 식으로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마구 엉뚱한 진술을 늘어 놓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혐의가 밝혀진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몇 되지 않은 사람들 철저히 색출해 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차 음모혐의자가 되어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요. 어쨌든 <음모혐의>는 가장 좋은 심문 방법입니다.³³⁾

닫힌 사회의 감시와 통제의 매커니즘을 정확하게 이청준은 박준의 소설을 통해 밝히고 있다.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체포 즉 감금당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익숙하게 내면화하여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순응해야 한다는 것,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금되어 감시받고 통제받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의문을 품을 때 탈주의 기미가 보이고 그것은 억압되어야 하는 불온한 자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주체는 가시적인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갱생과 교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박준의 경우 어릴 때 전깃불의 공포가 작가로서 느끼는 진술의 부자유를 보다 더 분명히 자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혹은 억압적인 진술 강요의 폭력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탈주를 감행했던 박준의 선택은 스스로 정신병자가 되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 역시 확실하고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심문관의 ‘당신의 전깃불과 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이미 스스로 선택한 당신의 수형의 고통이지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수형의 고통 때문에 이미 반쯤은 미친 사람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미쳐 갈 게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심판에 앞서 자신의 형벌을 그렇게 스스로 선고받고 있는 것입니다...’³⁴⁾라는 진술은 박준 스스로 닫힌 사회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정신병자가 되어 병원을 찾았던 그의 선택은 따라서 자가당착의 필연적 파국을 가져오고 만다. 병원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통제되고 규율화되어 있는 폐쇄공간이다³⁵⁾. 병원의 김박사는 또 다른 심문관이 되어 박준을 압박하고 그의 진술을 강요한다.

박준에 대한 김박사의 무리한 진술강요를 막기 위해 병원에 들렀던 나는 병원에 정전이 되었을 때 전깃불의 공포를 이용해 박준의 진술을 끌어내고자 한 김박사로 인해 그의 병실에 전깃불을 들고 갔던 간호원을 박준이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고 박준이 병원을 나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

33) 이청준(1971)「소문의 벽」『문학과 지성』여름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p.461

34) 이청준, 「소문의 벽」, 앞의 책, p.462

35) 푸코는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근대적인 훈육(discipline)의 기술을 크게 분할의 기술, 활동의 통제, 발생의 조직화, 힘들의 조립으로 설명했는데 그 중 분할의 기술은 어떤 공간을 외부와는 이질적인, 자체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장소로 특정화하는데 거대한 감금의 장소, 기숙사와 학교, 공장, 병영, 감옥 등이다. 그리고 폐쇄에 머물지 않고 감시 및 통제가능한 단위로 분할하는데 공장이나 학교의 자리, 감옥의 독방 등이며 그 위치들을 기능적으로 배치하게 되며 그 안에서 서열화된 위계 안에 배열됨으로써 전체적인 운영과 개별적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학교, 공장, 병원 등이 그러하다.(이진경, 위의 책, pp.162-165 참조바람)

그의 독자들이 안형과 내가 그의 소설을 내보내주지 않은 교활한(또는 지나치게 용기가 없거나 용기가 없는 체하거나, 그 용기와 관련하여 편집이 심한) 편집자들이, 그보다도 그의 전깃불 뒤에서 끝끝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복수만을 음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니는 정체불명의 소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한 것이다.³⁶⁾

박준의 실종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현실은 끝나고 나는 박준을 절망으로 밀어버린 주체였다는 것에 대해 심한 자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박준으로 하여금 정직한 자기 진술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들은 그 시대의 보이지 않는 권력이 만들어내는 습속, 즉 소문에 스스로 동일시되어 있는 주체들이라고 비판하는 나의 진술은 그러한 비극적 상황에 대한 저항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박준의 기괴했던 행각과 그의 실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의지를 우리는 정염(情炎passion)³⁷⁾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권력에 의해 내면화되고 습속화된 정체성은 다수적인(majeur) 통념을 통해 주체화를 사회적 질서 내지 지배 권력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고정하려 하지만 전깃불의 공포를 통해 닫힌 사회의 폭력성을 알게 된 박준과 그의 실종을 통해 깨닫고 책임감을 느끼는 나 같은 소수의 정염, 탈주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괴로운 일이지만 작가는 결국 그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전깃불의 공포를 견디면서 죽든살든 자기의 진술을 계속해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만약 그럴 수마저 없게 된다면 그는 아마 영영 해소될 수 없는 내부의 진술욕과, 그것을 무참히 좌절시켜 버리고 있는 외부의 압력 사이에서 미치광이가 되어 버리지 않고는 배겨날 수가 없을 것이다.³⁸⁾

위의 진술은 기실 이청준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전깃불의 공포를 견디면서 목숨을 걸고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는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비극적 결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오에의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육」과 『짓밟히는 싹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서사적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로가 흑인 병사와 동네 아이들, 나아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마을에 감금되어 감시당하는 신세가 된 소년들과 조선인 소년 그리고 탈주병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과 친화가

36) 이청준, 「소문의 벽」, 위의 책, p.470

37) 정염(情炎passion)은 예측화하는 모든 기표에서 벗어나려는 힘이며, 질서의 중심으로서 이성에 포섭되지 않는 힘이다. (이진경, 위의 책, p.237)

38) 이청준, 「소문의 벽」, 위의 책, p.469

그것이다. 소외된 소수의 개인들이 자발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나아가 그를 통해 새로운 주체화를 모색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억압적 사회의 극복의 당위성과 그 가능성을 오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그들만의 탈주가 다수의 폭력적 질서 앞에 파괴되고 마는 결말은 닫힌 사회의 억압적 상황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치열한 작가의식의 소산이다.

내 마음 속에서 열리려던 뚜껑이 급속히 닫혔다. 그리고 그것은 내 몸 둘레에 전염되어 내 동료들 모두가 촌장에게 강경하게 대항하는 태도, 확고부동한 자세를 되찾았다. 우리는 교묘하게 빠져들 뻔했다. 그리고 <빠져드는> 것처럼 굴욕적이고 머저리 같고 꼴불견인 일은 없는 것이다.³⁹⁾

다시 마을로 돌아온 촌장이 이 마을엔 전염병도 돌지 않았고 따라서 피난도 가지 않았으며 평온하게 지냈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할 때, 나뿐만 아니라 소년들은 “빠져들뻔”했던 함정에서 벗어났음을 자각한다. 순응적인 주체의 부정성을 깨닫는 순간이다. “빠져든다는 것은 굴욕적이고 머저리 같고 꼴불견이다”라는 인식은 확일적이고 폭력적인 통념에 대한 저항적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나의 구강에 피는 침, 수축하는 위, 그리고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말리는 굶주림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촌장이 잠자코 다가와 내 코 끝에 주먹밥의 접시와 공기를 내밀었을 때 나의 떨리는 팔이 그것을 뿌리쳐 떨어뜨린 것도 어쩌면 그 가슴을 죄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⁴⁰⁾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서 출발하는 탈주의 욕망인 것이다.

4. 망명자 혹은 비판적 진술자

아무튼 중심에 눌러앉아,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가자고, 나는 결정했다. とにかく中心的なところに居着いて、権力を持つ人々と共同するという事はしないでこう、と私はきめた。 ⁴¹⁾

39) 오에 겐자부로, 『깃뺨히는 싹들』, 앞의 책, p.313

40) 오에 겐자부로, 『깃뺨히는 싹들』, 위의 책, p.319

41)大江健三郎, 聞き手構成尾崎真理子, 앞의 책, p.72

‘지성에 있어서는 비관주의지만 의지에 있어서는 낙관주의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2003년 9월에 백혈병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믿고 있었던 그만의 진실 아니 신념으로 알려져 있는 말이다.⁴²⁾오에 겐자부로와 같은 해에 태어나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았던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만날 줄 알았다’라는 공감대를 동시에 느꼈고 그 이후 동지적 연대감을 지니고 살았던 에드워드 사이드와의 관계에서 그 둘을 묶고 있었던 것은 오에 겐자부로가 스스로 말하듯 ‘망명자’라는 자기인식이다.

오에와 이청준은 태생이 아웃사이더였다. 지역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지적 환경이 그러했다. 어릴 때 전쟁의 체험은 오롯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고, 지방 출신의 엘리트에게 도쿄와 서울은 충분히 낯설면서 동시에 자극적이었고 그것은 주변자로서의 자기인식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조건이었다. 그런 이십대의 그들 앞에 전개되는 정치, 사회, 경제의 급속한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비판자, 정직한 자기 진술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자로 만들었다. 그들의 치열한 자기 진술은 바로 그러한 세대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말이다.⁴³⁾

「병신과 머저리」와 같은 해(1966년) 발표된 「줄」은 줄타기 광대 부자(父子)의 비극적 삶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줄을 제대로 타려면 눈과 귀,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당부는 이청준 문학의 핵심을 보여준다. 어쩔 수 없이 진술할 수밖에 없다면, 자기를 믿고 자기의 마음을 읽고 그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을 터이다. 이청준은 순정(純正)한 광대의 삶을 통해 비극을 감수하더라도 하나의 경지, 즉 작가로서의 정직한 진술에 도달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러한 신념 아래 70년대 ‘언어사회학’이란 주제로 더욱 깊이 작가로서의 진술에 대한 책임과 사명에 대해 천착한다. 그 첫 번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떠도는 말들」에서 ‘고향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말들은 기실 지쳐 죽은 말들의 유령이었다. 지옥은 하루 종일 그 소리 없는 말의 유령들에 둘러싸여 조심조심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꼴이었다.’,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 가엾게 떠돌지 않는 말, 그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감사와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말, 그가 태어날 때 지은 약속을 벗어버리지 않는 말, 유령 아닌 말, 그는 아직도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쓴다.

오에와 이청준은 결국 말을 통해 망명자가 아닌 진정한 고향을 찾고자 했던 구도자와 같은

42) 오에 겐자부로 지음, 오자케 마리코 진행·정리, 윤상인·박이진 옮김, 위의 책, p.108 참조바람

43) 이청준(1971)「줄」『별을 보여드립니다』일지사, p.48

작가였던 것. 유년 시절의 전쟁과 청년 시절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서 비롯된 그들의 초기 문학에는 전후 지식인의 진지한 자기 모색과 지향이 세대론적 감각과 현실인식을 통해 치열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들의 초기 소설에는 시대와 개인, 권력과 주체, 중심과 주변 등 중요한 문학적 주제에 대한 치열하고 진지한 논의가 그들의 문학을 관통하는 공통적 주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최재철 외 옮김(1994)『1994 노벨문학상 수상 오오에 겐자부로오 대표작 선집』국일문화사
오에 겐자부로 著, 吳尙源·金世煥 譯(1994)『飼育』신구미디어
이노우에 야스사오에 겐자부로 外 著, 金정마·김현석·김형숙 오석운 옮김(1996)『일본대표단편선2』고려원
이청준 創作集(1971)『별을 보여드립니다』일지사
문학과 지성사(1971)『문학과 지성』여름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권보드래·천정환 지음(2012)『1960년을 묻다』천년의상상
권영민(1994)『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민음사
김영찬(2007.4)「4.19와 1960년대 문학의 문화정치」『한국근대문학연구』15, 한국근대문학회
김윤식·정호웅 공저(1993)『韓國小說史』예하
박태호(1998)『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오에 겐자부로 지음, 오자케 마리코 진행·정리, 윤상인·박이진 옮김(2012)『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문학과지성사
大江健三郎·聞き手構成尾崎真理子(2007)『大江健三郎 作家自身を語る』新潮社
유승창(2012)「오에 겐자부로 문학에서 보는 현실세계의 폐쇄성과 주변적인 공간의 시점」『일본어문학』52, 한국일본어문학회
이진경 지음(1997)『맑스주의와 근대성』문화과학사
호쇼 마사오 외·고재석 옮김(1999)『일본 현대 문학사 上』문학과지성사
호쇼 마사오 외·고재석 옮김(1999)『일본 현대 문학사 下』문학과지성사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1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要旨>

大江 健三郎와 李清俊 초기 소설 비교 연구

- 한·일 새로운 전후 세대의 세대감과 현실인식 -

본 논문은 오에와 이청준의 초기 소설의 주제의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각각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전후세대로서 보이는 세대감각의 측면과 또 하나는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현실비판의식이다.

일본의 경우 전후 문학의 주제가 새로이 변모하고 전후 소설가의 자기 변화와 새로운 작가들의 등장이라는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전후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였으며 한국 역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십 년이 지난 후인 1960년대 초였다. 오에와 이청준은 전후 문학에서 새로운 경향의 소설로 나아가는 세대의 대표 주자였다. 그들의 문학의 출발은 앞선 전후 세대와의 세대론적 차별성에 대한 인식, 그를 통한 자기 세대의 정체성 모색이었다.

자기 세대의 정체성 모색과 함께 이들 초기 소설의 주제는 망명자 혹은 비판적 아웃사이드로서의 현실비판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중심과 주변, 다수와 소수의 위계적 질서가 어떠한 장치를 통해 생산되고 수용되는지 그 양상에 대한 전착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감금 혹은 배제로 나타나는 폐쇄성에 대한 고찰로 형상화된다. 오에와 이청준은 닫힌 사회의 권력체제가 어떻게 종속적이며 순응적인 주체를 생산해내고 있는가를 주제 생산 매커니즘을 통해 비판한다.

다수적인(majeur) 통념을 통해 주체화를 사회적 질서 내지 지배 권력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고정하려는, 기존 권력에 의해 내면화되고 습속화된 정체성에 대한 비판 속에 오에와 이청준은 새로운 주체화에 대한 가능성과 지향을 드러낸다. 오에와 이청준은 소외된 소수의 개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나아가 그를 통해 새로운 주체화를 모색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억압적이고 폐쇄적이며 획일적인 닫힌 사회의 극복의 당위성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Oe Kenzaburo and Lee Cheong-jun's Initial Novels

- Focused on the new post-war generations' sense of generation and consciousness of reality in Korea and Japan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Oe and Lee Cheong-jun's thematic consciousness of their initial novels dividing it largely into two parts. The first is the aspects of their sense of generation as a new post-war generation separately in Japan and Korea, and the second is their criticism on reality based on that introspection.

In Japan, the time that the subjects of post-war literature changed newly and new post-war novels appeared as the novelists' self-alteration and new authors' emergence were harmonized is after the mid-1950's. And in Korea, too, it was about the early 1960's, that is, 10 years after the Korean War ended. Both Oe and Lee Cheong-jun were the leading authors in the generation proceeding from post-war literature to the novels with new trends. The start of their literature was recognizing the difference of generation from the previous post-war generation and also finding their own generation's identity with it.

Regarding the themes of their initial novels, not only they tried to find their own generation's identity, but they did show criticism on reality as an exile or critical outsider. It is shown as inquiries on the aspects of what devices produced and accepted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center and circumference or majority and minority. And this is embodied as consideration on the closeness manifested as either confinement or exclusion. Oe and Lee Cheong-jun criticize how closed society's power system produces subordinate and pliable subjects with the mechanism of production of subjects.

Within the criticism on the identity internalized and conventionalized by the previous power that intended to fix subjectivation through majeure common notion towards the direction corresponding to the social order or ruling power, Oe and Lee Cheong-jun express the possibility and pursuit to new subjectivation. By forming the bond of sympathy among the individuals of alienated minority, pursuing new interpersonal relations, and furthermore, groping for new subjectivation through that, Oe and Lee Cheong-jun show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oppressive and uniform, closed society.